



## 좋은이웃교회 GOODNEIGHBOR CHURCH

# 목장나눔지

좋은이웃교회는 감격이 넘치는 주일예배와 사랑이 넘치는 목장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아,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교회의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며'와 '집에서 떡을 떼며'라는 말씀을 근거로하여 주일은 '온세대공동체'가 모이고, 주중에는 '작은공동체'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은공동체: 목장모임은 '나눔중심예배'입니다. 설교자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이 아니라, 각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적용점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코이노니아공동체'입니다.



### WELCOME

함께 모인 목장원들이 환영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자(목자)의 재량에 따라 간단한 게임이나 유머를 통해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또는 식사를 먼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WORSHIP

- 1) 익숙한 찬양을 준비하여 찬양예배를 드립니다(15분).
- 2) 찬양은 예비과정의 아니요,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의 본질입니다.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예배를 드리십시오.
- 3) 목자가 항상 인도하지 말고, 은사를 가진 목장원 또는 서로가 돌아가면서 준비하면 좋습니다.



### WORD

- 1) 주일설교/개인묵상 나눔 > 예수님 자랑하기(감사) >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을 나눕니다.
- 2) 말씀나눔은 설교 또는 개인묵상에 대한 적용을 나누는 것입니다.
- 3) 예수님 자랑하기(감사)는 한 주 간 동안 삶에 감사했던 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 4) 예수님 기대하기(기도제목)은, 어려움이나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깊이 있게 나누는 것입니다.



### WORK

- 1) 함께 나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서로가 중보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2) 시간이 여유롭다면 한 사람씩 소그룹 가운데에 넣어, 몸에 살짝 손을 얹어 중보기도 합니다.
- 3) 기도는 준비가 아니라, '사역'입니다. 중보기도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 주일설교

**제목: 좋은이웃교회는?**

**본문: 요한계시록 3:7-13절**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밧모 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록했습니다(요한계시록 1:4, 9; 22:8절). 계시록의 내용은 1장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합니다. 이 책은 하늘과 땅에 있는 보이지 않는 실체를 드러내고, 지상의 현재 상황을 상징과 암호를 통하여 시각화하여 우주적인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소망과 인내의 이유를 묵시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형제의 사랑)는 소아시아의 사데에서 남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이곳은 당시 교통의 요지였고, 상업이 발달한 도시이고, BC 2세기경 버가모 왕조가 건립하였으며, 빌라델비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 있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는 세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하나, 책망만 받은 ‘사데교회’와 ‘라오디게아교회’, 둘,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은 ‘에베소교회’, ‘버가모교회’, ‘두아디라교회’, 셋, 칭찬만 받은 ‘서머나교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주권이 역사되는 교회입니다. 본문 7절에 “거룩하고 진실하사”라는 말은 예수님의 인격과 품성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세상 문화에 속화되지 않고, 예수님의 본질을 상실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회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둘째, ‘열린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교회는 신자(성도) 상호 간에 마음이 열려 있었으며, 하나님과의 소통이 잘되는 교회였습니다. 소통이 잘된다는 것은 양보하며, 겸손하게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 상호 간에는 물론이고, 이웃과의 전도와 물질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한 교회입니다. 본문 8절에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라는 말은 신분이나 지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미비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부족하여 세상에서 홀대를 받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넷째,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본문 9절에 빌라델비아교회는 “거짓말 하는 자들 중에서” 시련과 박해를 받았어도 신앙의 지조를 지켜낸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라는 말씀처럼 이미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성도)는 믿음의 선물로 받은 면류관을 말씀에 순종하며, 지켜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잃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교회, 열린 교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한 교회이며, 하나님께 면류관을 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좋은이웃교회’ 모든 신자(성도)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하나님께 칭찬만 받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 나눔질문

1.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왜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까?
2. 여러분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다”

미국 미주리(Missouri)주 어느 시골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그날따라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손님들마다 하나같이 삭발을 요청했습니다. 미용사는 사연이 궁금했습니다. 이들은 그 마을의 50여명이 출석하는 어느 작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었습니다.

미용사는 처음엔 이상한 ‘광신도’들인가 보다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에 교인들로부터 늘 사랑받던 여자 중학생이 있었는데 암수술을 받고 항암치료까지 마쳤지만 교회를 나오지 않자 목사님과 몇몇 성도가 심방을 갔다고 합니다. 머리를 짧게 밀어 삭발을 해서 부끄러워서 외출을 못 한다는 소녀의 사정을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에 돌아와 성도들과 의논한 결과 끝에 교인들이 모두 삭발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감동한 미용사는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주자고 의견을 모으고 이와 같은 작은 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작은 사랑의 이벤트의 내용이 그 소녀의 엄마에게도 전달이 되었습니다. 주일날, 그 소녀의 엄마는 소녀를 간곡히 설득하여 모자를 씌워 교회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방송국에서 취재차 나온 한 기자가 미리 교회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교회에 나온 그 여학생은 교회 문을 연 순간, 50여명의 까까머리 교인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소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자를 벗어야 되나 하고 잠시 망설이던 소녀는 결국 모자를 벗었습니다. 중계하던 기자가 이 광경을 보고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지만 언젠가 내가 교회를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습니다.”** 방송을 보던 많은 사람들도 감동의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교회들의 위기는 세상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신자인 리포터가 “교회에 나간다면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세상의 탐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서로를 돕는 모습일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가 살 뿐 아니라, “나도 저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감동이 있게 될 것입니다.

### THINK

누군가 내 삶의 모습을 보며, '나도 이런 교회에 나가고 싶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이보다 의미있는 삶이 있을까요? 꼭 가고 싶은 교회 공동체와 목장이 세워지기 위해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랑의 섬김은 무엇이 있을까요? 도전하십시오.

목장보고서를 주일예배 후에 목장사역센터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수요예배 담당안내					
담당	6월 29일	7월 6일	7월 13일	7월 20일	7월 27일
마을특송	온유	청장년	임마누엘	무지개	행복한
대표기도	손숙희 권사	이순희 권사	한명문 권사	한선미 권사	장정숙 권사

마을별 교회봉사 담당안내					
담당	7월 3일	7월 10일	7월 17일	7월 24일	7월 31일
본당청소	섬김	살롬.청장년	온유	임마누엘	무지개
중식봉사					

## 주요광고

- ◎ 제 1권사회 나들이 / 일시: 7월 5일(화) 오전 9시 ~ 오후 3시 / 장소: 대부도 바다향기수목원.
  - ◎ 샘솟는마을 헌신예배 / 일시: 7월 10일(주일) 오후 2시 / 장소: 3층 본당.
  - ◎ 월요목양새벽기도회 / 일시: 매주 월요일 새벽 5시 / 장소: 3층 본당(마을장,목자,교사,임원 필참).
  - ◎ 목요 향기로운예배 / 일시: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 장소: 3층 본당(중식 제공).
  - ◎ 제 2회 좋은이웃 볼링대회 / 일시: 7월 24일(주일) 오후 1시 30분 / 장소: 자마이카볼링장(관양동).
- (마을별 단체전 3인 1팀 / 개인전이 진행됩니다.자세한내용은 별도의 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파워전도대 토요전도 (2시 30분/ 2층 집합).

사랑 나눔 전도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금주: 꿈쟁이 / 다음 주: 장로회)

### ■ 교 우 소 식 ■

- ◎ 치유 중보 기도 - 김수차 권사/유수림 권사/김해생 권사/이문형 장로/김진석 집사/한정희 권사/이향숙 사모/유춘자 권사/조병양 집사/조인상 집사/문동준 청년/최진수 장로/황성원 전도사/오하엘
- ◎ 위로 - 정미현 권사(김상일 장로)의 부친 / 6월 26일 소천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